

OPEC·非OPEC관계와 전망

이글은 OPEC사무국의 Al Faiti氏가 日本 中東經濟研究院주최의 4차 국제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것을
옮긴 것이다.<편집자註>

'90년대'에 진입하는 시점에서 '80년대'石油市場에서 목격된 상황들을 되돌아보고
평가하는 일은 중요하다.

세계의 石油수요는 '80년과 '85년 사이에 감소했고 그 이후 증가추세를 보여왔다. 非OPEC의 생산은 계속 증가해 왔다. 또 유가는 '80년대 초에는 급등했으나, 그 이후 '82년부터 점진적인 하락세를 보여 '86년에는 급격한 유가폭락이 있었다. 그 이후는 격심한 유가변동을 수반한 부분적 가격회복이 석유시장의 특징이었다.

이러한 '80년대' 상황의 부정적측면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주로 거론된 것이 산유국과 소비국의 협력, OPEC·非OPEC산유국의 협력이었다. 이 글에서는 OPEC 및 非OPEC 석유수출국시비의 역사적인 관계변천을 다루고 미래전망과 이러한 협력의 결과에 대한 비판적인 검토를 할 것이다.

1. 배경

石油시장 안정을 위한 OPEC·非OPEC 산유국 사이의 협력개념은 '80년대에 공식적으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OPEC의 기원은 1960년 9월 OPEC 창설로 거슬러 올라간다.

OPEC 정장 2항이 명시하는 OPEC의 목적은

- ① 산유국의 이익과 안정된 수익 확보
- ② 소비국에 대한 효율적이고, 경제적이며 정상적인 석유공급,
- ③ 석유산업에 대한 적정한 이윤 확보이다.

'60년대 및 '70년초 OPEC는 본질적으로 회원국 정비 및 그때까지 석유산업을 지배해왔던 다국적기업과의 이견해소 및 권한다툼에 주로 관여하였다.

그러나, '73년 1차 석유위기후, OPEC는 회원국의 높은 석유감소율과 경제성장 촉진 및 석유시장 안정을 촉진할 목적으로 공정한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선진소비국과의 협의를 공식화하려는 시도에 몰두하였다.

'80년대 특히 후반에 「非OPEC 산유국」이라는 용어와 시장안정을 위한 OPEC협력개념이 점차 전면에 등장했다.

1960~1980년중 OPEC가 성취한 것이 무엇이든, 즉 탐사계약형태의 변화이든, 국제석유사와의 관계이든, 이것이 세계적 자원개발에 공헌하였고 유한자원으로서 석유의 중요성에 대한 각성을 촉구하였다는 점에서 非OPEC 산유국들도 똑같은 이익을 얻었다.

OPEC 석유매장량은 계속 증가하여 '73년 4,209억배럴에서 '88년 7,628억배럴로 점유율은 72.5%에서 76.9%로 증가하였다.

OPEC의 이러한 매장량 대규모증대는 非OPEC산유국들의 원만한 증대와 대조를 이룬다. 非OPEC산유국들은 '73년 1,596억배럴에서 '88년 228.7억배럴로 증가했을 뿐이다.

그러나 공산권 및 非OPEC 개도국들의 경우는 높은

세계석유매장량추이

(단위 : 10억 배럴)

	1973	%	1979	%	1985	%	1988	%
OECD	64.2	11.1	56.0	8.9	54.2	7.2	50.9	5.1
공산권	65.3	11.2	82.1	13.0	82.8	10.9	83.6	8.4
非OPEC개도국	30.1	5.2	57.3	9.0	81.7	10.8	94.2	9.5
非OPEC 計	159.6	27.5	195.4	30.9	218.7	28.9	228.7	23.0
OPEC	420.9	72.5	436.2	69.1	537.0	71.1	762.8	76.9
세계 計	580.5	100.0	631.6	100.0	755.7	100.0	991.5	100.0

세계석유생산추이

(단위 : 백만B/D)

	1973	%	1979	%	1985	%	1988	%
OECD	11.7	21.1	12.7	20.2	14.9	27.9	14.0	24.2
공산권	9.6	17.3	14.2	22.6	14.7	27.6	15.5	26.8
非OPEC개도국	3.2	5.7	5.0	8.0	8.2	15.4	8.7	15.0
非OPEC 計	24.5	44.1	31.9	50.8	37.8	70.9	38.3	66.1
OPEC	31.0	55.9	30.9	49.2	15.4	29.0	19.6	33.9
세계 計	55.5	100.0	62.8	100.0	53.3	100.0	57.9	100.0

석유가채년수

(단위 : 年)

	1973	1979	1985	1988
OECD	15.0	12.1	10.0	9.9
공산권	18.7	15.9	15.4	14.8
非OPEC개도국	26.0	31.4	27.1	29.4
非OPEC 計	17.9	16.8	15.8	16.3
OPEC	37.2	38.6	95.2	106.2
세계 計	28.7	27.6	38.8	46.8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 이 기간중 실제 생산현황은
매장량증가추세와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OPEC산유량은 '73~'79년중에는 3,100만b / d 수준에서 다소 안정적인 추세를 보인 반면, 그 이후 급격히 하락 '85년에는 1,540만b / d로 급감하였다. 이것은 특히 '80년대 초반 석유수요감소에 의해 야기되었다.

반면, 非OPEC산유량은 '73년 2,405만b / d에서 '79년 3,190만b / d로 '85년에 3,780만b / d로 계속 증가해 왔다.

非OPEC산유량의 증대는 공산권(510만b / d), 非

OPEC 개도국(500만b / d), OECD(320만b / d)였다.

이러한 非OPEC생산현황은 OECD 및 共產圈의 가채비율감소 및 非OPEC개도국의 가채년수가 소폭증가한 반면, OPEC는 '73년 가채년수가 37.2년에서 '85년 9.5년으로 증가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세계는 먼저 非OPEC자원을 고갈시키는 전략을 채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석유시장안정에도움이 되지 못한다. 소비국의 기본정책은 對OPEC의존도를 감소시키는 것이었는데, 이것은 근시안적인 단기정책으로 이로 인한 장기적 의존증대를 고려하지

않았다.

이러한 배경으로 OPEC는 석유시장안정이 점차 어렵게 되었고 유가가 하락하고 석유수익도 '80년 287억달러에서 '85년 131억달러로 급감하였다.

석유수익감소는 계속 OPEC산유량을 감소시키고 '82년 4월이래 회원국 생산쿼터 제도등으로 유가유지노력을 했으나 석유수익감소는 막지 못했다.

이 기간중 非OPEC산유국은 OPEC가 설정한 가격 및 생산통제제도를 이용 생산을 증대시킬 수 있었다.

또, 이를 非OPEC산유국들은 OPEC와 비교하여 불법 가격할인을 통해 판매경쟁력을 유지하였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OPEC는 석유자원보존 및 자원에 대한 장기적 전략을 채택하긴 했지만, 석유시장점유율상 실은 궁극적으로 가격구조를 해칠 수 있다는 경고가 있었다.

과거 OPEC의 광범위한 생산능력은 이러한 가격제도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85년 이러한 OPEC 생산이 기타 산유국의 협력부족으로 줄어들자, 시장은 '86년 유가폭락을 겪었다.

그 이외에도 많은 가격변동을 겪어왔다.

OPEC이 88년 말까지 400만b/d를 회복해도 非OPEC 생산은 전보다 낮은 증가율이진해도 계속 증가했다.

특히 美國으로부터 OECD생산감소는 '85년 이후 개도국·공산권 생산증가에 의해 상쇄되고도 남았다.

일반적으로 이것은 非OPEC산유국들은 여전히 생산국대화 정책을 따르고 있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그러나, 가격하락으로 인한 개발투자감퇴는 생산을 전에 수준으로 증가시키는 것을 어렵게 하고 있다.

OPEC가격결정의 최근 경쟁요소는 非OPEC개발유인을 감소시켰다.

2. '86년前의 관계

OPEC·非OPEC 산유국사이의 어떠한 공식적인 협력노력도 '70년대말 이전에는 없었다. 세계수요는 계속 강세를 유지할 것으로 간주되었고 제1차 석유위기 이후에도 증기추세를 재개할 것으로 간주되었다. 실상, '80년대중에 공급이 부족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있었다. 이러한 예상에 따르면, 시장은 모든 산유국들을

수용할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고, 따라서 굳이 생산정책을 상호조정하거나, 생산을 관리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산유국들 사이의 최초의 협력시도는 '78년末에 만들어졌다. Hernandes 베네수엘라 석유장관이 런던방문 중 OPEC·非OPEC산유국 회의를 갖자고 제안했다.

이 제안은 영국에너지省이 수락했으나, 非OPEC 산유국들 사이의 충분한 협의부족으로 이 회의는 열리지 못했으며, '79년 2월 이 제안은 사장되고 말았다.

선진국의 구조적 변화와 에너지보존, 대체노력의 성공으로 81년부터 석유수요가 감퇴하기 시작하자, 시장안정 달성을 위해서는 非OPEC증산은 더이상 임파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 많은 OPEC관사들은 非OPEC의 노력요청(구체적으로 정의되지는 않았지만)을 주장하였다.

'83년 3월 런던에서 열린 67차 OPEC총회는 1,750만b/d의 산유쿼터를 설정하였다. 또 많은 석유장관들은 英國에너지장관과 회동, 협력의 필요와 OPEC 가격에서 할인판매하지 않을 것을 협의하였다.

그러나, 英國이 OPEC의 곤경에 동정을 한 것으로 보도되었지만, 공식적인 협력약속은 없었다.

'84년 7월 빈에서 열린 OPEC총회의 공동성명은 공식적으로 최초로 非OPEC산유국들과의 협력 필요성을 인정하였다.

「총회는 非OPEC산유국의 증산이 최근 시장상황전개에 큰 기여를 하였다는 점에 주목하고 석유시장 안정 및 유가구조보호의 책임을 공동 분담할 OPEC·非OPEC 산유국의 협력증진 방안 발견을 위해 이러한 국가들과의 접촉을 개시할 것을 결정했다.」

OPEC는 멕시코의 지지를 얻어 멕시코는 수출을 150만b/d로 제한하고 유가를 가능한한 OPEC 산유국과 연계시키기로 합의하였다. '84년 7월 야마니 사우디석유장관의 런던방문결과로서, 英國 국영석유사(BNOC)는 北海유전에서 활동중인 石油社에 가격구조를 해치지 않도록 촉구하는데 합의하였다.

불행히도, 이러한 노력정신은 '84년 10월 Statoil社가 BNOC을 뒤따라 현물가격과 연계된 새로운 가격방식을 선언했던 후 오래가지 못했다.

또 이것은 곧이어 열린 OPEC회의에서 생산상한을

1,600만b / d로 하고, 새로운 쿼타배분 및 N / C가격을 배럴당 29달러로 인하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非OPEC의 증산 및 할인판매정책에 직면 가격구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멕시코는 또다시 수출을 140만b / d로 감축, 이집트도 수출 3만b / d감축등으로對OPEC 협력 움직임을 보였다. 또 이들 국가들은 위에서 언급한 OPEC 총회의 옵저버로써 초청되었다.

'85년 말까지 역사적인 사건의 전개를 인용할 수는 있지만, 이 기간중 OPEC·非OPEC 사이에 많은 접촉이 이루어졌다고 밀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러한 접촉은 확대, 말레이시아, 브루네이, 소련등도 포함되었다.

'84. 10~'85. 12월 사이의 OPEC총회 및 기타 조위원회회의에 멕시코, 이집트, 말레이시아, 브루네이등 非OPEC 옵저버 국가들이 대거 참석했었다는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볼때 낯설지 않다.

이 기간중 노르웨이는 노르웨이 산유량은 유가영향을 미칠정도가 되지 못한다고 주장하면서 OPEC과의 협력을 거부했다.

3. '86년이후 관계

'86년의 유가폭락은 모든 산유국, 특히 非OPEC산유국에 큰 충격을 주었다. OPEC는 적어도 이같은 충격의 지속성을 경고하였다. 非OPEC산유국에 대한 유가폭락의 영향은 그들이 유가하락에 따른 수입감소를 생산증대로써 보전하여 결국 최대 생산능력으로 기동함으로써 더욱 참담한 실정이었다. 생산량의 증대는 노르웨이를 제외하고는 더이상 어려웠다.

유가하락의 결과는 산유국간의 협력을 위한 더욱 효과적인 방안수립을 구체화 시키게 하였다. Arturo Hernandez Grisanti OPEC 의장은 石油시장의 불안정성을 경고하였다.

『OPEC과 非OPEC산유국은 유가폭락을 막기위한 가능한 모든 노력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과거에 밝혀듯이 非OPEC산유국이 혼란된 시장의 나쁜 영향을 깨닫지 못하고 책임있게 행동하지 않으면 OPEC는 그같은 상황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앙골라와 오만같은 국가는 지난 '86년 4월 4일에 OPEC 제77차 특별회의에서 발표된 성명과 같이 대화

에 참여하게 되었다.

『총회는 앙골라, 이집트, 말레이시아, 멕시코, 오만과 같은 非OPEC 산유국과 유익하고 건설적인 협의를 가졌으며, 여기서 양측은 OPEC의 公式價 28\$ / B로 OPEC基準價를 점진적으로 회복시킨다는 점에서 유가구조에 대한 공통된 목표에 합의하고 현재 시장상황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였다.』

총회는 또한 시장안정화를 위한 공동노력에 대한 합의라는 점에서 非OPEC산유국과 필요한 접촉을 위하여 인도네시아, 쿠웨이트, 나이지리아, 사우디아라비아, 베네수엘라의 대표단장인 석유장관들도 5개국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당시 非OPEC목표는 28\$ / B로의 유가회복이었다. 그러나 아라비안라이트의 경우 당시 11.7\$ / B까지 하락한 이후 그같은 목표달성을 위해 OPEC를 지지하는 그들의 방안은 매우 애매한 것이었다. OPEC내부의 의견차이가 非OPEC 산유국과의 협상에서 다른 요구조건을 출현시키는데 방해가 되었다.

'86년 7월까지 유가는 10\$ / B까지 하락하였으며, 지지약속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非OPEC 산유국으로부터 나오기 시작하였다.

- 오만은 50만b / d에서 5만b / d생산을 감축할 것임.
- 노르웨이는 유전개발계획을 재검토하고 계획된 증산을 축소시킬 것임.
- 말레이시아는 10%(3.5만b / d)의 수출감축을 OPEC의 생산조절조건으로 제의.
- 멕시코는 150만b / d 수출중 15만b / d를 감축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이것도 OPEC의 생산조절과 연계.
- 蘇聯은 이미 50만b / d의 수출감축을 주장, 수출은 향후 5년간 증가할 것 같지 않음.
- 이집트는 산유량을 7만b / d 감축
- 앙골라는 산유량을 2만b / d 감축

OPEC는 非OPEC의 계속된 산유량 증가를 예상하고 이것이 OPEC의 초과생산과 함께 유가를 약화시켜 즉각적인 행동을 요구하게 하였다. 1986년 7/8월의 78차 OPEC총회는 OPEC생산상한을 1600만b / d로 한정하였다. 이것은 OPEC의 산유량을 잠정적으로 줄이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總會는 또한 非OPEC산유국에 대해 시장안정의 부담을 OPEC과 함께 진다는 의미로 상당물량의 감산을 요구하고 이것이 안될 경우 OPEC

는 혼자만으로 유가를 방어할 수 없음을 밝혔다.

OPEC의 입장은 확실히 밝혀졌고 '86년 10월 79차 총회에서 재검토되었다. 1986년말에 고정가격제로 복귀하는 한편 이라크를 제외한 OPEC의 생산상한을 1, 580만b / d로 결정하고 非OPEC의 보다 나은 협조를 도출하기 위해 계속 접촉을 하는 것들은 86년말까지 유가를 15.11\$ / B로 상승시켜 시장에 영향을 끼쳤다. 이집트는 1987년 산유량을 94만b / d에서 7만b / d로 감축시키는데 합의하였다. 蘇聯은 서방국가에 대한 수출을 5만b / d 감축시키는 '87년 1 / 4분기에 7~10만b / d 까지 감소시킬 가능성을 비추었다. 노르웨이는 계획된 생산능력에서 7.5%(8만b / d)를 감산하기로 하였다. 캐나다(앨버타주) 같은 국가도 토의에 참여하였다.

유가는 기대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회복되자 불행하게도 협조의 긴박성을 줄어만 갔다. 유가는 '87년 1 / 4분기 OPEC의 행동과 非OPEC의 협조로 크게 개선되었다. 이것은 1987년 6월 81차 총회의 루크만회장의 연설에서 잘 나타나 있다.

『지난 12월 OPEC가 합의에 도달했을 때 非OPEC의 협조가 모든 시장관계자에게 큰 이익이 될 것이기 때문에 非OPEC은 협조와 비슷한 수준의 감산을 할 것이라고 기대되었다. 그러나 여타 보고는 지난 4개월간 다른 소식을 전해주었다. 공개적으로 OPEC를 지지하고 나섰던 몇몇 非OPEC국가들은 지난해와 비교하여 실질적으로 중신을 하였다.

루크만의장은 12월 8일 2차 회의에서도 강한 어조로 재차 언급하였다. 그들은 OPEC의 성공을 이익으로 실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非OPEC의 지지는 무너져 가고 있다.

英國같은 국가는 시장안정화를 위한 산유국들의 어떤 형태도 반대한다고 선언하였다. 다른 국가도 생산수준을 규제하여 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겠다고 약속하고 한때는 그렇게 하였으나, 시장의 변함에 따라 약속을 저버렸다. 어떤 국가들은 약속을 지켰다. 예를 들어 멕시코, 노르웨이는 OPEC와 협조하여 생산량을 규제하였다. 일반적으로 한국가가 시장의 안정을 희망하고 공개적으로 이를 위한 노력을 다짐한다면 이와 상충되는 행동은 애초에 이같은 약속을 하지 않을 경우에 시장에 주로 나쁜 영향보다 훨씬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 OPEC이 非OPEC의 협조를 환영한다 하더라도 시장안정을

위해 생산능력의 절반 밖에 생산을 하고 있지 않은 OPEC가 주로 유가방어의 짐을 지고 있다는 점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

'87년말과 '88년중의 유가약세는 OPEC과 비OPEC 산유국의 접촉을 강화시켰다. '88년 3월에 앙골라, 중국, 콜롬비아, 이집트, 말레이시아, 멕시코, 오만의 비OPEC 산유국들은 석유시장 상황과 대책등을 논의하기 위해 런던에서 회합을 가졌다. 4월에는 이들은 OPEC의 알제리, 인도네시아, 쿠웨이트, 나이지리아, 사우디아라비아, 베네수엘라와 비엔나에서 회의를 가졌다. 非OPEC산유국들은 獨立石油輸出國家(IPEC)로 불리는 것을 선포한다는 것을 제시하고 다른 국가의 참여보장을 위해 노력하도록 다짐했다. 이 회의의 중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

『앙골라, 이집트, 중국, 말레이시아, 멕시코, 오만은 5, 6월동안 각각 5%씩 수출물량감축을 제의하였다. 지난간 6개월간의 평균수출이 이번 감축의 기준이 될 것이다. 이같은 조치는 OPEC의 유사한 대응과 연계될 것이다.』

감축물량은 '86년에 제의한 것보다 적었으며, OPEC의 대응감산을 조건부로 하였다. 이것은 '88년 4월 28일의 OPEC의 전문가 회의가 이문제에 관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어렵게 하였다. 후에 루크만의장은 기자회견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독립산유국의 제의는 포인트를 명확히 하고 향후 취한 조치의 형태를 회원국정부와 협의하기 위하여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였다. OPEC는 시장을 일시적으로 받치는 것에는 관심이 적다고 물론 단기적 안정도 관심사항이지만 궁극적으로 시장의 장기적 안정성이 OPEC와 非OPEC 모두에게 중요하고 그들은 이런 사항을 표명해야 한다.』

OPEC는 명백히 그러한 제안에 흡족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제안을 거부하는 것은 OPEC이 非OPEC과 협력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일 우려가 있는 반면, 이 제안을 수락하는 것은 '86년 유가폭락의 배경이 되었던 OPEC 시장점유율 감축을 의미할 이제 앤이 '88년 6월에 개최될 83차 OPEC회의에 회부되었으나, 이제안을 수락하지도 거부하지도 않고, 산유국들 사이의 장기적 협력 기반을 구축할 목적으로 접촉을 계속하기로 결정했다.

이회의에서 OPEC사무총장으로 임명된 수브로토는 다수의 非OPEC산유국들과 즉각 새로운 접촉과 협의를 실행하여 총회와 위원회에 보고하는 관행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11월 84차 총회까지 OPEC는 회원국들에게 수용가능한 현실적합의를 발견하는데 주력했다.

OPEC이 일부 非OPEC산유국들의 협력에 감사를 표하긴 했지만 협력을 거부한 여타 국가들이나 감산협조약속을 지키지 않은 국가에는 불만족을 표했다.

1988년 11월 회의는 '89년 상반기 생산상한을 1,850만b/d로 설정하고 가능한 한 빨리 배럴당 18달러 기준 가회복목표를 설정하는 등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에따라, 수요증대와 함께 非OPEC 산유량증대도 허영되었으나 영국북해 생산문제 때문에 실제는 하락하였다.

非OPEC산유국들의 감산협조가 없으면 2/4분기 가격약세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인식된 것은 '89년 초였다. OPEC와 IPEC기술전문가들은 '89년 1월 26일 런던에서 회의를 갖고 석유시장 안정목표달성을 위한 협력을 강화시키기로 합의하였다.

독립계석유수출국(IPEC) 혹은 앙골라, 캐나다, 알버타주, 中國, 콜롬비아, 이집트, 말레이시아, 멕시코, 노르웨이, 오만, 蘇聯, 美國의 알라스카, 텍사스주, 예멘 대표들은 옵저버로써 참석하였더라도, 이러한 IPEC 움직임은 84차 OPEC총회의 합의결과를 인식하여 많은 관심을 끌었다. 독립계생산자들은 시장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향후 수개월간 필요한 협력조치를 취할 것을 관련 산유국들에 권고하였다.

독립계생산자(IPEC)들은 '89. 2. 21일 런던에서 회동 생산·수출감축 및 동결을 발표하였고, 이러한 발표는 시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쳤다.

이합의의 의미는 OPEC와 관련없이 독자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있다. IPEC산유국들은 시장의 안정 및 보다 양호한 투자 및 수익 창출환경을 조성하려는 그들의 관심에 따라 행동한 것으로 보인다.

4. '80년대 시장에 대한 비판적 회고

OPEC이 협력의 대상으로 삼은 주요 非OPEC산유국들은 OECD그룹의 노르웨이, 영국 및 소련·중국등

공산권, 앙골라, 콜롬비아, 이집트, 말레이시아, 멕시코, 오만등 개도국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산유국들은 純原油수출국이어서 OPEC가 관심을 가졌다. 이외에도 많은 非OPEC 석유수출국이 있지만 석유수출물량이 작거나, 상대적으로 새로운 수출국이다.

OPEC가 非OPEC의 협력을 얻으려는 반복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산유량은 '79년 1,860만b/d에서 '88년 2,410만b/d로 550만b/d나 증대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이들 국가들의 거듭된 減產發表의 實效性에 對한 의문을 던져주었다.

이점은 OPEC그룹은 물론 개별산유국들에도 해당된다.

멕시코, 이집트의 경우는 생산이 감소하는 예외를 보였다.

中國의 純輸出은 '85년에 비해서 '88년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것은 국내수요증가에 기인한 것이다.

때때로 이들의 협조는 OPEC側의 행동을 조건으로 한 것으로 하기도 하고, 非OPEC산유국의 압력으로 OPEC내부 의사결정에 불화를 야기하기도 했다.

반면, OPEC는 非OPEC側의 특정요구를 수용할 수 없는 입장이다.

그 이유는,

첫째, 공식적인 조직의 형태를 갖추지 못해 非OPEC 그룹이 협상대상으로 적절치 못하다는 것이다. IPEC 대표들이 회담을 가진다하더라도 이들의 일부는 옵저버로 참석할 뿐이며, 또 일부산유국은 OPEC과의 협력을 바라고 있지 않다.

둘째,一部 非OPEC산유국에 對한 OPEC협력거부를 촉구하는 정치적압력, 예를들면, 노르웨이는 IEA 및 OECD회원국들로부터 對OPEC협조감산에 대한 비난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노르웨이는 減產이 성격상 노르웨이 독자적으로 결정된 것이며 감산시한이 설정되었다는 점을 주장해왔다.

셋째, 시장점유율 분포 및 非OPEC과의 수요증분배분 방법에 관한 OPEC內異見이다.

한편, 非OPEC산유국과의 협력에 더 전향적이었던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非OPEC산유국들의 석유수출수익은 OPEC의 가격구조보호정책 및 석유수요하락시에도 非OPEC

증산등으로 '79년 463.6억달러에서 '85년에는 947.9억달러로 증대하였다. 반면, OPEC는 이기간중 산유량과 석유수익의 감소를 겪어야 한다.

그러나, 非OPEC 석유수익은 저유가시대도래로 그 이후 감소, '88년에는 678.8억달러로 감소하였으나, '79년보다는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반면, '88년 OPEC 석유수익은 '79년보다도 훨씬 낮았다.

양골라와 오만을 제외한 非OPEC산유국의 GDP중
석유수출비율은 낮은 수준이었는데, 이것은 이들 산유국
경제에 對한 역효과만 없다면, OPEC에 對한 추가적인
협조가 가능할 수 있었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이들 국가중 일부는 높은 외채, 社會간접자본개발문제 등을 갖고 있지만, 이것은 OPEC국가들에도 해당되는 일이다.

총수출중 석유수출의 경우에도 이러한 논리는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둘째, OPEC와 주요 非OPEC산유국사이의 경제적 상관관계는 전체적으로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러한 산유국들의 對OPEC수출금액은 '79년 108.1억달러에서 '88년 115.2억달러로 증가하였던 반면, OPEC의 이들 국가들에 對한 수출은 '79년 97억달러에서 '88년 89.7억달러로 감소하였다.

재미있는 것은 이러한 교역에서 가장 큰 이득을 보는
英國은 어떠한 형태의 對OPEC 협력도 단호히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英國은 이외에도 OPEC 산유국의 오일 머
니를 그들의 금융기관으로 흡수하는 이득을 누린다.

석유문제협력이 진전된다면 교역관계는 더욱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非OPEC 산유국들의 석유생산투자비가 OPEC 국가들의 그것보다 높다는 것이다. OPEC에 對한 협력은 高油價·高收益을 보장받을 수 있었을 것이며, 이로 인한 석유생산재투자도 용이해질 것이라는 것이다.

되돌아보면, 일부분석가들은 '80년대중 OPEC 및
非OPEC협력은 부분적으로 성공적이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0년대중 석유산업이 직면한 어려운
환경하에서, OPEC·非OPEC협력은 때때로 석유시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고, 중요한 시기에 유가안정에 기여하였다.

OPEC 및 非OPEC 산유국들은 모두 이러한 협력을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90년대 석유산업이 직면할 장기적 문제에 관심을 돌리고 있다.

5. 향후 협력전망

OPEC·非OPEC산유국 사이의 협력전망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먼저 수급균형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수요측면에서는 '90년 6,551만b/d에서 '95년 7,040만b/d로 점진적인 증대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견해를 OECD 선진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 최근 정치·경제적 개혁을 동구등 공산권의 수요증대, 인구증가와 산업화를 겪고 있는 OPEC를 포함한 개도국의 계속적인 석유수요증대 등을 근거로 한다.

공급측면에서는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충분한 공급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蘇聯, 中國등 공산권은 산유량을 '90년 1,590만b / d에서 '95년 1,640만b / d로 증대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개도국들은 '90년 900만b / d 산유량을 '95년 1,095만b / d까지 증대될 전망이다.

그러나, OECD 지역 산유량은 '90년 1,595만b / d에서 '95년 1,510만b / d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형태의 공급전망에 따르면 OPEC산유량은 '90년 2,386만b / d에서 '95년 2,795만b / d로 증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전망은 외견상 더이상 산유국사이의 협력이 필요없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OPEC은 조만간 쿠타배급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하는 생산수준에 도달할 것이며 이렇게 될 경우 시장안정 및 석유수익 유지·증대를 위해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외견상 그럴듯해 보이지만 최종결정에 영향을 미칠 모든 불확실성을 수용하지는 못한다. 현재의 예상에 따르면, 세계경제가 잘 운용된다 하더라도, 경제침체의 가능성(특히 美國)은 배제할 수 없다. 무역 및 예산적자로 인한 달리貨의 가격변동 및 약세압력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세계외환시장에서 고이자율은 석유산업의 투자가 예상대로 잘 진행되는 것을 방해할 수도 있다. 공산권의 정치적변화가 경제적변화 즉 석유수요증대로 이어지는데는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모든 것은 산유국에 對한 낙관적전망을 부정적으로 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이것은 OPEC 및 非OPEC 산유국 누구도 협력시대의 종결이란 단순논리를 지지할 수 없게 하는 이유이다.

장기적으로, 또한 차례 가격상승을 회피하려면, 산유국들은 점진적인 유가상승으로 이루어지는 안정적 시장유지가 필요할 것이다. 기타 에너지원으로부터 경쟁 역시 완화되고 있지 않다.

總에너지중 석유비중을 높이는 혹은 적어도 급격한 석유비중신소를 막는 문제에 對한 공동이해를 갖는 것은 생산·수출국들에게 유리할 것이다.

모든 에너지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환경문제는 산유국 사이의 협력지속을 위한 또 하나의 이유이다.

또, 산유국들은 환경보호논자의 주장의 요지를 이해하여, 일부 이해집단이 환경문제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데

대비, 공동의 책임있는 입장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

한편, 석유이외분야에 관한 협력을 지속하려는 산유국들은 새로운 관심분야를 찾아낼 것이다.

무역관계개선, 기술취득 및 개발에 관한 상호의존 및 협력수단의 향상등은 꿈같은 제안만은 아닐 수도 있다.

최종적으로, OPEC는 산소비국사이의 협력을 계속 요청할 것이며 이를 위한 첫단계로서 OPEC · 非OPEC 산유국사이의 협력은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많은 분석가들은 '80년대의 양자협력의 부정적인 측면을 들고 있지만 '80년대 OPEC와 실질적 협력을 유지했던 非OPEC 과 OPEC 산유국들은 솔직한 협의 및 정보교역 등 양자협력의 긍정적인 측면에 집중하고 있다. '90년대 OPEC · 非OPEC 사이의 협력의 증진을 기대한다.♣
〈유개공, 주간석유뉴스〉

□거듭나기□

쉽게 흔들리는 당신을 위하여

사람은 무가치한 데이터에 근거해서 결정을 내리고 그에 따라 행동을 해나간다. 그러한 경우, 가능한한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것이 낫고, 결과에 대해 무관심한 편이 낫다.

그러나 결정을 지어야 될 의무가 있을 경우에는

가능한 최대의 주의를 기울여

두려움없이 그 결정을 실행에 옮겨야 한다. 〈M. 간디〉

자아에 대한 지식은 값을 칠 수 없는 자산인데

우리는 노력없이 이를 얻기를 바란다.

부나 명성 등은 가치없는 데도

이들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주려고 한다. 〈M. 간디〉

지금 나 자신의 영혼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경우이든 자신에게 물어보는 습관을 길러야 하며,
지금 이 순간 어떤 영혼이 내 마음속에 자리잡고 있는
가.

어린아이의 영혼인가? 젊은이의 영혼인가?

아니면 연약한 여성의 영혼인가?

또는 폭군의 영혼인가?

또는 야수의 영혼인가?

언제나 그것을 생각해야 한다. 〈M. 아우렐리우스〉